

제국의 양탄자, 그 경이로움: 도하 이슬람미술관 대표 걸작전

전시 도입 패넬

이번 전시는 이란의 사파비 왕조, 튀르키예의 오스만 왕조, 인도의 무굴 왕조를 대표하는 양탄자를 필두로 10세기~19세기 도자기, 금속 공예품, 필사본, 옥공예품 등을 함께 소개하는 자리이다. 정교하고 아름다운 전시 작품은 사파비 왕조(1501~1736), 무굴 왕조(1526~1857), 오스만 왕조(1299~1923) 사이에서 무역, 이주, 외교를 오가며 활발했던 예술 교류의 증거이기도 하다. 아울러 중국과 이슬람이 서로 주고받은 예술적 영감도 그 속에 생생하게 살아 있다.

전시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7세기부터 이어진 이슬람 세계와 중국 간 문화 교류 및 상호 학습을 소개한다. 이어서 사파비 왕조, 무굴 왕조, 오스만 왕조를 주제로 제국별 양탄자와 다양한 예술품의 디자인과 제작 방식, 문화적 의미, 지역적 특성, 지역 간 지식 전파를 살펴본다.

홍콩 고궁박물관과 도하 이슬람미술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도하 이슬람미술관이 소장한 대표 유물 약 100점과 더불어 자금성과 홍콩 고궁박물관 소장품 일부도 함께 전시한다.

도하 이슬람미술관

도하 이슬람미술관(Museum of Islamic Art, MIA)은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이슬람 예술품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다. 2008년 정식 개관하였고, 새롭게 단장한 18개의 상설 전시실은 14세기에 걸친 이슬람 역사로 가득 찬 보물의 방이다. 마그레브 지역부터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이르기까지 그 출신지도 각양각색인 소장품으로는 귀중한 채색 『쿠란』 사본, 정교하게 삽화를 넣은 필사본, 화려한 양탄자, 세련된 도자기, 유리 제품, 금속 제품 등이 있다. 건축가 페이(I. M. Pei)가 디자인한 단순하면서도 위엄이 넘치는 외관이 돋보이는 도하 이슬람미술관은 이제 단순한 건물이 아닌 도하의 스카이라인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손꼽힌다.

전시 부분 패널(제1부):

이슬람 세계와 중국 간 문화 교류

이슬람 세계와 중국 간 교류는 당나라(唐, 618~907)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슬람에서 신의 사도라 말하는 예언자 무함마드(570?~632)는 당나라 재상 두우(杜佑, 735~812)가 편찬한 『통전(通典)』에도 등장한다. 7세기 중반경에는 걸프 지역과 중국해를 잇는 해상 교역망이 발달하였고, 무슬림 상인들은 하이난섬, 취안저우, 광저우, 양저우 등 중국 연안 지역뿐만 아니라 내륙의 쓰촨 지역과 그 너머까지 교역 거점을 마련하였다. 이들의 해상 무역 활동은 중국 남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중국과 외국을 오가던 상선은 침몰 사고를 겪기도 하였다. 난파선에서 발견된 중국 도자기와 이슬람 유리 제품을 보면 대양을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연결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도자기를 비롯한 고급 공예품은 아바스 왕조(750~1258)부터 오스만 제국(1299~1923)까지 이슬람 세계를 매료시켰다. 중국 예술에 등장하는 구름 무늬, 연꽃, 용 등의 문양은 이슬람 예술의 회화, 도자기, 양탄자 등에서도 빈번히 등장한다.

한편, 중국의 예술가와 장인들도 이슬람 세계의 금속공예, 유리공예, 직물 등에서 영감을 얻었다. 이란 카산 지역의 코발트 광석은 당나라 때부터 이른바 회회청(回回靑)이라는 ‘코발트블루’ 안료가 되어 중국 도공의 손을 거쳐 청화백자로 재탄생하였다. 명나라(1368~1644) 시기 무슬림이던 환관 정화(鄭和, 1371~1433)가 걸프 지역 너머까지 일곱 차례 대규모 원정을 이끌었다. 마환(馬歡)은 『영애승람(瀛涯勝覽)』을 편찬하면서 정화의 대원정을 기록하였다. 명대 도자기의 형태, 문양, 색채에 나타난 이슬람 예술의 영향은 중국과 이슬람 세계 사이의 깊은 유대 관계를 생생하게 보여 준다.

전시 정보 패널: 양탄자 제작

이번 전시를 대표하는 양탄자는 매듭으로 고를 지으며 짜는 과일직 작품이다. 과일직의 양탄자는 부드러우면서도 견고하고, 장식성이 있으면서도 실용적이기도 하여 무궁무진하게 디자인할 수 있다. 이슬람을 상징하는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과일직 양탄자 중 지금까지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작품은 2,300년 전에 제작되었다. 정확한 제작 장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학자에 따라 페르시아 또는 아르메니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베를 위를 교차하는 세로 방향의 씨실과 가로 방향의 날실이 과일직 양탄자의 바탕이 된다. 날실에 하나하나 매듭을 묶으면 과일이 되고 이 과일을 이용하여 양탄자에 무늬를 새긴다. 매듭이 촘촘할수록 양탄자의 품질이 좋다. 최고급 양탄자는 가로세로 10센티미터(10x10cm) 공간에 수천 개에 달하는 매듭이 들어가기도 한다.

양탄자를 짜려면 먼저 ‘매듭 계획’이 있어야 한다. 매듭 계획이란 구전으로 이어온 지시문으로, 작업 감독자가 “세 번째 줄의 파란 매듭 여섯 개 옆에 빨간 매듭 두 개를 지어라”는 식으로 말로 지시하거나 노래하듯 읊어준다. 전시된 대형 왕실 양탄자 중에는 10명 이상의 공정 직조공이 수년 동안 공동으로 작업해야 했을 정도로 정교한 작품도 있다.

이번 전시에 소개되는 양탄자의 날실과 씨실 바탕의 재료는 견사, 양모, 면사이고, 표면을 덮고 있는 과일은 견사이거나 양모이다. 최고급 양모는 히말라야산양 털로 짠 ‘파시미나’이다. 견사는 금속으로 감싸 장식 효과를 극대화하기도 하였다.

이슬람 세계에서 사용하던 실은 15세기 말이 되자 더욱 가늘어졌고 매듭 밀도도 증가하여 무늬에 정교함을 더하였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양탄자는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세 왕조인 사파비 왕조, 무굴 왕조, 오스만 왕조에서 제작한 명품 중의 명품이다. 왕실이 발주한 대형 양탄자는 왕권을 상징하는 시각적 수단이자 궁전이나 의례 공간을 장식하는 예술품으로 제작되었다.

전시 정보 패널: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의 역사적 뿌리

중국은 오래전부터 중앙아시아를 넘어 서쪽으로 나아가며 여러 문화와 접촉하였다. 한나라(기원전 202~기원후 220)에서는 무제(武帝, 재위: 기원전 141~87)가 장건(張騫, ? ~ 기원전 114)을 서쪽으로 파견하여 유목 민족과 동맹을 맺고 천마(天馬)로 알려진 명마를 구해 중국 기병을 강화하려 하였다. 당시에 이미 상인들이 오랫동안 중국 본토의 서쪽 지역을 오가고 있었다고는 해도, 한나라 정부가 서역에 대한 인식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은 장건이 올린 원정 보고였다.

5세기~6세기가 되자 중국과 페르시아 간 관료급 접촉은 더욱 활발하였다. 사산 왕조(224~651) 페르시아 사절단은 북위, 남량, 서위 등 중국 왕조를 방문했고, 수나라(隋, 581~619) 양제(재위: 604~617) 치세에는 중국 사절이 사산조 군주(샤한샤) 호스로 2세(재위: 590, 591~628)를 알현하기도 하였다. 이후 당나라(唐, 618~907)는 사산 왕조가 멸망하였을 때 페르즈 3세(636~679)에게 망명처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중국 내 고고학 발굴 과정에서 신장, 허난, 산시는 물론 멀리 남부의 광둥성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사산 왕조의 은화가 다량 출토되었다. 은화는 사산 왕조 군주 12인의 치세에 골고루 발행된 것으로 나타나 중국과 이란 간 육로 및 해상 무역이 활발했다는 증거가 된다. 당시 교역로를 오가던 물건 중 으뜸은 비단이라서 나중에 비단길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기는 하였지만, 다양한 직물, 종이, 차, 향신료, 광물, 금속, 유리 등도 수요가 높았다.

소그드인은 비단길 교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들은 현재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 일대의 소그디아나 출신 이란계 민족이다. 수완 좋고 끈기가 있으며 언어에 능통한 소그드인은 외래 상품, 패션, 예술, 문화를 중국에 소개하면서 가는 곳마다 현지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들은 소통과 협력, 개방성과 포용성, 상호 학습과 상생이라는 비단길 정신을 구현한 대표적인 사람들이었다.

같은 정신으로 무장한 이슬람권 상인들도 동남아시아, 인도, 중국으로 향하며 무역을 이어갔다. 이들은 상아, 마노, 진주, 후추, 장미수, 유향, 직물 등 다양한 물품과 진귀한 물건을 실어 날랐다. 10세기부터 13세기까지 중국과 이슬람 세계 간 해상 무역은 정점에 달했다. 중국 연안에 정착한 무슬림 상인도 많았고, 송나라(宋, 960~1279)는 이들을 “먼 곳에서 온 친구”로 환대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우정은 오늘날에도 그 빛이 바래지 않았다.

전시 정보 패널: 이슬람 세계의 예술

이슬람은 예언자 무함마드(570?~632)에게 계시가 된 신의 말씀인 『쿠란』에 기초한 종교이다. 무슬림은 하루 다섯 번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를 향해 기도하고, 일생에 한 번은 메카로 성지순례 하는 것을 이상으로 여긴다. 이슬람 신앙의 핵심 개념으로는 자선이 있다. 무슬림은 이슬람력 9월(라마단)에는 단식을 행하여 삶의 축복을 되새기고 불우한 이웃을 생각한다.

오늘날 전 세계 인구 네 명 중 대략 한 명이 무슬림이다. 이슬람 세계는 역사적으로 아라비아반도뿐만 아니라 스페인 남부에서 북아프리카, 중앙아시아를 거쳐 인도와 동남아시아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지역을 포괄하였다. 『쿠란』의 언어인 아랍어는 모든 무슬림이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이자 아랍권 지역에서는 일상어이기도 하다.

“이슬람 미술”이라는 간단한 표현은 보통 이슬람 통치하에 탄생한 종교 예술과 세속 예술을 모두 포괄한다. 대표적인 형식으로는 건축을 비롯하여 서예, 채색 필사본, 제책, 금속 공예, 도자기, 유리 공예, 직물, 회화 등이 있다. 모스크에는 인물 표현이 없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예술 작품에는 사람이나 동물을 묘사하기도 한다.

종교 예술과 건축에는 『쿠란』의 문구가 자주 등장한다. 예를 들어, 이슬람의 5대 기둥(의무) 중 첫 번째인 샤하닷(신앙고백, “알라 외의 신은 없고, 무함마드는 신의 사도이다”)는 건물이나 일상용품에 새겨지곤 한다. 기도용 깔개 역시 중요한 종교 예술품이다. 이슬람의 중심에는 자선이 있으므로, 신앙심이 깊은 무슬림은 기도용 깔개와 다양한 물품을 모스크에 헌납하기도 한다.

이슬람 미술품은 글씨, 도형, 꽃, 식물에서 따온 문양으로 표면을 가득 채운다. 문양을 구성하는 디자인과 도상은 이슬람 세계 전역을 넘나들었던 예술적 교류의 산물이기도 하다. 특히 왕실 공방에서는 풍부한 자금과 최고의 장인, 최상급 재료를 바탕으로 이슬람 미술에서 불후의 디자인이라고 할 만한 작품이 창조되었다.

전시 부분 패널(제2부):

사파비 왕조(1501~1736)

사파비 왕조는 이란 현대사에서 가장 위대한 제국을 235년간 다스렸다. 전성기에는 현재 이란 전역을 비롯하여 이라크, 아제르바이잔, 튀르키예 일부, 아프가니스탄, 조지아 등지를 지배하였다. 사파비 왕조 최고의 통치자라는 아바스 대왕(재위: 1587~1629)은 성공적인 군사 원정, 행정 개혁, 통찰력 있는 도시 개발, 효과적인 경제 부흥 전략, 유럽 및 인도 아대륙과의 무역 활성화 등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하였다.

아바스 대왕의 치세에는 국가가 지원한 비단 산업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여 군사 작전, 정치 계획, 인프라 사업의 자금원이자 이란 중부의 새로운 수도 이스파한에서 예술을 후원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이란산 비단은 광택이 뛰어나 상업적으로 인기가 높았다. 아바스 대왕은 사파비 왕조와 군사적 충돌이 잦았던 오스만 제국에 대항하여 동맹을 구축하는 유럽과의 외교 협상에서 비단과 귀중품을 주고받았다. 유럽인들은 생사(生絲) 외에도 사파비 왕조가 제작한 고급 제품을 갈망하였고 그중에서도 양탄자가 독보적이었다.

견사를 날실과 씨실로 삼은 양탄자의 가치는 높았다. 화려함을 더하려 견사를 금속으로 감싸기도 하였다. 16세기~17세기 유럽에서 사파비 양탄자의 수요가 늘어나자, 이란 직조공들은 비단 대신 면화 사용 비율을 늘려 단위 면적 당 매듭 밀도를 줄이는 방식 등으로 생산 효율성과 속도를 높이는 여러 전략을 도입하였다. 디자인도 다소 단순해졌지만 그 강렬함은 잃지 않았다. 사파비 양탄자는 국제 시장에서 언제나 인기 있는 오스만 양탄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력한 경쟁자였다.

아바스 대왕이 국제 무역에 투자한 결과, 특히 사파비 왕조가 걸프 지역 통제권을 되찾은 1622년부터 중국 자기가 대거 유입되었다. 아바스 대왕이 수백 명의 중국 도공을 이스파한으로 초청하여 현지 장인과 기술 교류를 지원하자 국내 도자기 생산 수준도 향상되었다. 화려한 중국산 자기는 경제 부흥 전략의 일환일 뿐만 아니라 아바스 대왕이 자선을 실천하는 수단이기도 하여, 약 1,000점의 중국 자기를 아르다빌에 있는 사파비 왕조의 영묘에 기증하였다.

전시 부분 패널(제3부):

무굴 왕조(1526~1857)

300년 이상 지속된 무굴 왕조는 인도 아대륙의 대부분을 통일하였다. 무굴 왕조를 세운 바부르(재위: 1526~1530)의 모계 혈통은 칭기스칸으로 연결되고, 부계로는 티무르의 후손이다. 손자인 악바르 대왕(재위: 1556~1605)은 영토를 확장하고 행정을 개혁하여 무굴 왕조를 강국의 반열에 올렸다. 자한기르(재위: 1605~1627)와 자한 대왕(재위: 1628~1658)이 다스리던 시기에는 역사적으로 손꼽히는 희귀한 다이아몬드와 정교한 건축물이 등장하면서 세계를 매료시켰다.

무굴 왕실에서 제작된 양탄자는 그 품질, 기량, 크기, 제작 비용 등 어느 것을 보아도 비할 데 없는 예술 작품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궁정에서는 공식 석상에서 귀빈의 자리를 마련하고 사적인 향유 공간을 표시하는 등 그 용도가 다양하였다. 악바르는 예술 후원으로 당대에 손꼽은 인물로, 회화부터 양탄자 직조까지 예술과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이란에서 이주한 직조공이 참여하자 무굴 제국 전역에서 왕실 공방이 광범위하게 운영되었다.

무굴 최고의 매듭 과일직 양탄자는 티베트 왕국에서 사육한 히말라야산양의 털인 파시미나 양모를 과일 직조의 재료로 사용하였고, 그 바탕이 되는 씨실과 날실은 견사였다. 17세기와 18세기에는 영국, 포르투갈, 네덜란드 상인이 라호르, 아그라 등지에서 제작된 무굴 양탄자를 유럽의 상류층에 판매하였고, 네덜란드 상인의 손을 거쳐 일본으로도 수출하였다. 무굴 왕실은 양탄자를 외교 선물로도 활용하였다. 예를 들어, 자한 대왕은 이브라힘(재위: 1640~1648)이 새로 오스만 왕조의 술탄이 되자 기도용 깔개 두 점을 선물하였다.

1636년, 자한 대왕이 데칸고원 침공을 승리로 이끌면서 무굴 제국은 남부 권역에서 지배력을 한층 강화하였다. 1680년대 후반, 자한 대왕의 아들 아우랑제브(재위: 1658~1707)가 당시 세계 유일의 다이아몬드 광산이던 골콘다를 정복할 무렵에는 독특한 무굴-데칸 지역 회화 양식이 발달하여 양탄자 디자인에도 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문화적 융합은 중국 도자기와 비단에서도 영감을 받은 데칸 궁정 예술의 다채롭고 개성적인 시각 언어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